

## Maryland Judiciary

### 의사 결정 기준

#### *Decision-Making Standards Korean Transcript*

귀하는 후견인으로서 장애인의 의사 결정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귀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의사 결정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대리 판단, 최선의 이익,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 사전 동의라는 4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대리 판단은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한 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정합니다. 일부 후견인은 그 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장애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장애인과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장애인이 유서, 생전유서,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로 자신의 의향을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면 약간의 발품을 팔아 탐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했던 결정뿐만 아니라 선호, 가치, 생활 방식 및 행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돌보는 사람 또는 성직자와 같이 장애인이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및 윤리적 신념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의사 결정 기준은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거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장애인에게 부과하는 부담과 이익을 따져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또는 정부기관과 같은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인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은 장애인의 독립성과 위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사용하면 장애인의 선호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의사 결정 기준은 사전 동의라고 합니다. 귀하는 신상후견인으로서 장애인이 보살핌, 치료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지에 입각한”이란 장애인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치료나 서비스의 목적, 위험, 이점 및 대안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동의는 타인으로부터 강요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견인으로서 결정을 할 때 이 네 가지 의사 결정 기준을 사용하십시오. 대리 판단은 장애인이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기준을 사용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은 장애인의 위엄과 독립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옵션을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동의는 장애인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서비스의 목적, 위험, 이점 및 대안을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